

# 다문화가정 아동

Children in Korean Multi-cultural Families

문혁준(Hyuk-Joon Moon)<sup>1)</sup>

최윤경(Yoon Kyung Choi)<sup>2)</sup>

서소정(So-Jung Seo)<sup>3)</sup>

## ABSTRACT

Korean society has been facing many challenges and promises resulting from the rapid population shifts into multi-cultural and multi-ethnic family composition. Government strived to respond to the impending demands and needs of Korean cultural families, in terms of marriage and birth, caring and educating children, and labor and work. This paper overviews the current state of Korean multicultural trends and facts in terms of family, marriage, children, and work. It also overarches major issues of multicultural studies of family relations and child development. By wrapping the facts and issues in current discourse and studies, pragmatic policy points were provided and condensed into some suggestions for the policy-making and program implementation.

**Key Words** : multicultural families and children(다문화가정 아동), parenting(다문화가정 아동의 자녀 양육), child care and early education of multicultural children(보육).

## I. 현 황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자본주의 시장의 확대·재편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국경을 넘는 노동력의 이동과 교환이 거부할 수 없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체류외국인 115만명, 결혼이민자 15만명, 외국인 근로자 16만명에 이룸에 따라, 정부는 우리나라를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규정하였으며, 2006년 사회통합 지향의 다문화정책을 주요 국가의제로 공식화했다. 국내적으로는

<sup>1)</sup> 가톨릭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sup>2)</sup> 육아정책개발센터 부연구위원

<sup>3)</sup> 경희대학교 아동가족전공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So-Jung Seo,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E-mail : seosojun@khu.ac.kr

산업 인력에서의 지속적인 수요와 누적된 도농간 성비불균형 및 지역발전차로 인한 농촌 인구의 저조한 혼인율, 그리고 가난의 고리를 끊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갖고자하는 외국인들(특히 아시아 여성들)의 유연한 유입력이 우리나라에 국제 혼인시장을 형성했다. 이와 같은 산업현장의 노동력 수요와 혼인을 통한 가족자원 확보라는 당면요구에 따라 1994년까지 주를 이루었던 한국인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국제결혼비율은 상대적으로 줄고, 2003년을 기점으로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간의 결혼이 가파르게 증가해, 이제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은 ‘결혼이민자’ 가정과 ‘이주노동자’ 가정과 의 두 축을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을 1) 부모 중 한 쪽이 외국인 국적을 가진 “국제결혼” 가정(또는 결혼이민자 가정)과 2) 부모 모두 외국인 국적으로 국내 취업활동을 통해 입국해 살고있는 “외국인 근로자” 가정(또는 이주근로자 가정)의 크게 두 범주로 구분하여 논의하고자 한다.<sup>1)</sup> 우선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변화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1) 정부기관의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최근 수년간의 인구학적 추이와 이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다문화지표를 가족구성 중심으로 가늠해보고, 2)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법제정과 정책의 현황과 변화, 그리고 실제 실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지원과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개관해 보고자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2008)은 배우자 중 한 사람이 한국인인 경우를 ‘다문화가정’으로 규정하나, 본 연구는 통계자료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두 배우자 모두 외국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가정까지 포함한 광의의 범주로 고려하고자 하였다. 명칭에 있어 국제결혼가정은 결혼이민자가정으로, 외국인 근로자가정은 이주근로자가정이라고 통용되기도 한다.

## 1. 다문화통계지표 : 사회인구학적 추이

통계청 혼인통계에 따르면, 2008년 국제결혼이 총 36,204건으로 전체 혼인건수 대비 11%에 달한다. 결혼이민자는 2007년 10만명을 돌파하여, 2008년 5월 시점 공식누계 144,385명으로 파악된다. 결혼이민자의 절반 이상(53%)이 서울·경기지역에 거주하며, 성별로는 여성의 비율이 88.4%로 우세, 2009년 법무부의 출입국 외국인 통계에 의하면, 현재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 가운데 여성이 남성의 7배에 달한다.

농어촌의 경우, 2008년도 전체 혼인건수 중 약 40%가 국제결혼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대부분 한국인 남성과 외국인 아내의 결혼(2,472건, 38.3%)이었다. 결혼이민자의 국적은 중국과 중국 조선족의 비율이 전체 이민자의 약 62%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14.6%)과 필리핀(5.4%)의 순으로 아시아 국가들에 집중되어 있다. 상대국 분포에 있어 과거 1980-90년대에 종교적 이유 등으로 많았던 일본여성과의 국제결혼은 비율면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한중수교 이후 중국인들의 결혼 이주가 활발해졌다. 최근에는 국제결혼 대상국이 필리핀, 몽골,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으며, 결혼이민자 중 약 3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1) 다문화가정 결혼·이혼 현황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국인과의 국제결혼비율은 가파른 증가일변도에서 벗어나, 2005년 이후 최근 몇 년간은 경미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기혼 국제결혼 부부의 이혼율은 2008년 11,255건으로 2002년 대비 6.5

<표 1> 국제결혼이민자 누계 현황

	중국 조선족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대만	몽골	태국	기타	계
전 체	55,789 (38.6)	33,667 (23.3)	21,150 (14.6)	7,826 (5.4)	6,464 (4.4)	3,805 (2.6)	2,054 (1.4)	1,843 (1.2)	11,787 (8.1)	144,385 (100%)
국적 취득	23,323	10,984	1,490	3,110	470	464	199	199	1,433	41,672 (28.9%)

출처 : 행정안전자치부, 2008.

배 증가, 동기간 국제결혼 증가율 2.4배에 비해 가파르게 상승하였으며, 2008년 기준 국내 총 이혼의 9.7%를 차지한다(통계청, 2008). 그동안 지적되어왔던 국제결혼 가정의 적응의 어려움과 가족관계 갈등이 실제 결혼생활유지의 어려움으로 나타나 구체적인 이혼 지표가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다문화가정 아동 현황

공식적으로 파악된 다문화가정의 아동은 2008년 총 5만8천여명으로, 이는 과거 2006년 2만5천명, 2007년 4만4천명에 비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행정안전자치부, 2008). 결혼이민자 자녀의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만 6세미만 취학전 영유아가 전체 57.1%, 초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아동이 전체 32.2%로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따라 아동수의 증가도 연령별로 단계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취학전 영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에 해당하는 어린 아동이 대부분이므로, 육아, 보육 및 교육 관련 지원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하겠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령기 아동 자료를 살펴보면 가족유형별로, 첫째, 국제결혼가정의 경우 2007년 대비 39.6% 증가하여 현재 총 18,778명의 초·중·고 학생이 집계되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재학율이 전체 80% 이상으로 월등히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경기(20.6%), 서울(12%), 전남(10%), 경남(8.2%), 충남(7.9%) 순으로 서울·경기지역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 90.2%(16,037명)로 대부분을 이루었으며, 국적별로는 일본(41.0%), 중국(22.3%), 필리핀(14.3%)

<표 2> 국제결혼 혼인 및 이혼 추이

해당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총혼인건수	304,877	302,503	308,598	314,304	330,634	343,559	327,715
국제결혼건수 (전체대비%)	15,202 (5.0%)	24,776 (8.2%)	34,640 (11.2%)	42,356 (13.5%)	38,759 (11.7%)	37,560 (10.9%)	36,204 (11.0%)
총이혼건수	144,910	166,617	138,932	128,035	124,524	124,072	116,535
국제결혼이혼수 (전체대비%)	1,744 (1.2%)	2,012 (1/2%)	3,300 (2.4%)	4,171 (3.3%)	6,136 (4.9%)	8,671 (7/9%)	11,255 (9.7%)

출처 : 통계청, 2009.

&lt;표 3&gt; 국제결혼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가정의 학령기아동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국제 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가정	국제 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가정	국제 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가정	국제 결혼가정	외국인 근로자가정
2005년	5,332	995	583	352	206	227	6,121	1,574
2006년	6,795	1,115	924	215	279	61	7,998	1,391
2007년	11,444	755	1,588	391	413	63	13,445	1,209
2008년	15,804	981	2,213	314	761	107	18,778	1,402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을 기점으로 최근 수년간 급증한 중국, 조선족,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통한 자녀출산이 시기적으로 아직 학령기 자녀군으로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이해된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경우, 2008년 기준으로 총1,402명이 집계되어 국제결혼가정 아동의 약 7.5%에 해당한다. 2007년 대비 15.9% 증가하였으나, 최근 수년간 국제결혼가정에서와 같은 증가율의 상승은 없었다. 초등학교 재학율(70%)이 가장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38.2%), 경기(30.6%), 전북(8.0%), 경남(7.7%)로 서울·경기지역으로의 집중이 나타났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부모의 국적별로는 몽골(26.2%), 일본(22.0%), 중국(20.3%)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이주근로자가정의 자녀의 경우 공식적으로 드러난 재학 현황은 파악되나, 체류 및 신분문제 등으로 인해 미취학 상태인 학교 밖 아동에 대한 파악은 반영이 안 된 수치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밖에, 국제결혼이 초혼이 아닌 재혼인 경우가 약 40%로 국제결혼에서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2006년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 가족 연구의 표본조사(N=1,177)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절반 이상(52.8%)의 가족이 현 배우자

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가 있었으며, 이전 결혼에서 태어난 자녀가 있다는 비율은 한국인 배우자의 20.4%, 이민자의 16.4%로 조사되었다(설동훈·이혜경·조성남, 2006). 즉, 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양육뿐만 아니라,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양육도 함께 해야하는 등 자녀양육의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 3) 다문화가정의 경제활동

첫째, 다문화 가정의 취업률과 직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6년 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 가정(N=1,177)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설동훈 외, 2006)에 의하면, 국제결혼을 한 남성들은 내외국인 국적에 상관없이 92%가 취업하고 있다. 외국인 여성 결혼이민자의 취업은 약 30-40%로 나타난 가운데, 조선족·한족여성의 약 40%가 맞벌이 가구를 이루고 있었으며, 상대적으로 베트남 여성의 취업률이 가장 낮았다(설동훈 외, 2006; 설동훈 외, 2005). 다문화가족 부부의 취업 여부와 직업 종류는 성별과 출신국, 거주지역별로 차이를 보인 가운데, 경제활동의 범위가 점차 다양한 직업군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조선족 남성은 육체노동 종사자가 대부분인 반면, 기타 국가 남성은 학원강사 등의 준전문직에 종사하

는 경우가 많았으며, 조선족·한족 여성은 주로 식당과 같은 서비스업 종사가 많았으나, 필리핀·베트남 여성은 공장 등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취업 이민자 여성은 취업을 희망하나 주로 자녀 양육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러한 현상은 도시보다 농촌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 취업을 한 결혼이민자들은 취업시 어려움으로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 자녀양육의 부담을 추가적으로 겪었다. 한국인 남편의 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외국인 아내의 취업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의 경제활동 다변화 속에서도 대다수 맞벌이가정이 장시간 노동에 경제적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의 양상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둘째, 국제결혼 가정의 가구소득은 한국전체가구소득의 59%, 한국전체생산직가구소득의 68% 수준에 해당, 다문화가정의 상당수가 저소득 빈곤층에 속해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의 지원이나 생활보조금을 받는 경우는(표본조사의 경우) 4%로 매우 적게 집계되었다(설동훈 외, 2006). 그들의 한국에서의 경제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 또한 ‘하층’에 가깝다고 인식(11점 척도에 3.8점)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주관적·객관적 지표 모두 다문화가정의 높은 빈곤율과 낮은 생활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 2.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및 법체계, 서비스 현황

### 1) 다문화가정 지원 관련법 제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 정비

2006년 다문화정책이 주요 국정의제로 채택됨에 따라,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실행의 일환으로 2007년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개원하였으며, 2008년 3월에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

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고 적응해나가는데 필요한 지원을 내용으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 2008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구체적으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2009년 1월 현재 전국 100개소에 이르며, 2008년 2월 중앙다문화교육센터를 지정하여 본격적인 다문화가족지원사업들이 건강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하에 시행되고 있다. 2008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9조를 통해 다문화가정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으며, 지난 4월에는 2007년 제정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로, 우리나라가 외국인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체계 근간이 마련되었다(문무경·조혜주, 2008).

일각에서는 관련 법규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업무체계는 중복·분산되어 있으며 정책운용상 부처간 수평적 조화와 연계가 없고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 미비하여 상징적인 수준에 머무른다는 비판이 있다. ‘다문화기본법’으로의 재개정과 헌법과의 통합체계 구축, 담당 행정조직의 일원화된 창구가 요구되고 있다.

### 2)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법적·제도적 정비와 함께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사업과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에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빈곤층을 위한 생계비 지원과 영유아보육, 경찰의 가정폭력 보호, 여성 긴급전화 서비스, 보건소의 임신·출산 지원, 노동부의 취업훈련 및 취업알선, 지자체의 생활정보제공 등이 주요 내용으로 제공되고 있다. 대표적인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으로 취학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육아지원사업인 ‘아동양육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가 담당하며, 학령기 아동에 대한

‘교육지원’으로 한국어 및 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무부처로서 담당하고 있다.

먼저 아동양육지원사업의 대표적 예로 임신 및 출산 관련 산전·산후 돌봄서비스와 영유아 보육로 지원사업을 들 수 있는데, 지원 대상은 2010년 저소득 다문화출산가정에서 시작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보육시설 전반에 다문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보편적 개념의 다문화복지서비스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가족 밀집지역에 다문화특성화 보육시설을 지정하여 다문화교육의 실행 초기단계에 있고,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보육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다문화 교육내용을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교육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나, 아직 교사들이 근거할만한 구체적 교수학습모형이나 교수전략, 교사훈련 프로그램은 미비하다.

학령기 아동을 위한 대표적 교육지원사업으로 한국어 교육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방문형 또는 거점형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그 밖에 다문화 이해교육, 한국 생활문화정보제공 및 한국요리강습과 같은 한국문화관련 지도, 상담 및 치료, 소그룹활동 지원 등 다양한 교육 내용이 구축되고 있다. 또한 학령기 자녀들의 학교생활을 위해 집단따돌림 예방 프로그램 운영, 학교 일반교육과정으로서의 다문화교육과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지원기능 강화,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학교를 통한 복지 및 상담서비스 등이 시도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건강가족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대표적인 다문화가정 서비스 전달 매체로, 이곳을 통해 전국 공통사업인 한국어 교육과 상호문

화이해교육, 그리고 문제가족 상담을 수행하고 있다. 특화사업으로는 문화정서지원사업, 결혼이민자가족 역량강화사업, 다문화 인식 개선, 그리고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과 한국어교육, 컴퓨터 운영 등을 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교육지원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2006)에서 22개의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였고, 여성가족부(2006)는 전국 21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결혼이민자가족의 한국어 교육, 문화이해교육, 상담 등 종합서비스 제공하였다. 구체적으로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부모교육의 성격을 띠었다. 일부 민간단체에서는 코시안을 위한 대안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 II. 연구쟁점

최근까지 다문화가정의 아동과 관련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주요 쟁점들, 즉 1) 외국인 이주 노동자 가정을 포함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양육 및 교육, 2)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 및 학교적응, 그리고 3) 다문화 가정의 부모-자녀 관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 1. 다문화 가정의 자녀양육 및 교육실태

다문화가정의 전반적인 자녀 양육과 아동의 교육실태에 대해서는 전국적 샘플을 확보한 전수조사자료가 아직까지는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특정지역의 다문화가정을 연구 대상으로 이루어진 심층면담 및 설문조사(김갑성, 2008; 설동훈, 2005; 오성배, 2005)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자녀양육 및 교육실태에 대해 언급되고 있는 정도이다. 자녀양육의 경우는 대부분

외국인 여성인 어머니가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정의 미취학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현황을 살펴보면 각각 10.0%, 7.2%로 우리나라 취학 전 자녀를 둔 가정의 56.8%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07).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들이 보육 및 교육 기관의 혜택마저 받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김영옥·임진숙·정상녀, 2008).

일부 지역 다문화 가정의 취학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심층면담 결과, 한국사회에 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문제는 자녀 양육과 교육이며, 특히 자녀 교육에서 한국어 습득, 학교 공부 지도, 사교육비 문제가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갑성, 2008). 이러한 결과는 이주여성으로서 한국사회적응과 아동양육이라는 이중고를 안게 되는 이주여성 어머니들은 그들의 의사소통에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류 한국사회에서의 자녀양육 및 교육에 많은 애로사항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개인변인에 따른 양육태도를 살펴본 연구(김영옥·임진숙·정상녀, 2008; 정기선 외, 2007)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이들 가정의 인구사회적 특성에 따른 양육태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개인변인 중,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을수록, 어머니와 자녀의 의사소통시 어머니 자신의 모국어 사용보다는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할 경우에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더 자율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가정 어머니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정기선 외(2007) 연구에서도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중요한 부분인 이들 가정의 자녀양육 전반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자녀의 연령을 미취학 연령, 취학연령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연구대상 가정의 부모양육 및 대리양육(어린이집과 유치원) 실태, 언어(어머니 모국어 및 한국어)사용, 자녀양육의 어려움 등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결혼이민자가족구성원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두 가지 문제들, 즉 자녀양육과 교육의 현안을 다루었지만, 여전히 연구의 범위나 성격은 실태조사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결혼이민자가정의 자녀 및 부모관련 특성변인에 따른 개별 가정이 처한 다양한 사회맥락적 상황(가족관계, 가족생활문화, 부분관계, 부모-자녀교육기관과의 관계, 지원프로그램과의 관계 등)이 고려된 자녀출산, 양육 및 교육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보다 다각적이며 총체적인 시각으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 2. 다문화가정의 아동의 발달 및 학교적응

지금까지 다문화가정의 아동의 전반적인 발달과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김갑성, 2006; 김병순, 2007; 류현주·김향희·김화수·신지철, 2008; 조영달, 2006).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정의 특수한 가정환경으로 인하여 언어발달 수준이 일반 아동의 또래에 비해 수준이 낮은 것이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및 인지발달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함에 따라 언어발달이 지체되고 이로 인해 의사소통에 제한을 받으며(류현주 외, 2008; 조영달, 2006), 또한 다문화 가정의 유아들은 한국 표준화 집단에 비해 사실에 대한 지

식 습득도 영역에 있어 낮은 인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구효진·최진선, 2007). 다른 측면에서는(김갑성, 2006; 오성배, 2005; 홍영숙, 2007) 이들의 일반적인 의사소통이나 언어 또는 인지능력에는 별 다른 큰 문제가 없으나, 독해, 어휘력, 쓰기, 작문능력이 일반 유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므로 이후 학교교육 또는 학업성취도 차원에서 예방과 중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있어서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또래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05), 특히 다문화가정의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의 적응과정을 조사한 몇몇의 연구들(김병순, 2007; 김희태·권영덕, 2007; 박미경, 2006)에서도 유아교육기관에서 또래들과 잘 지내지 못해 혼자놀이를 하거나 교실 안을 배회하거나 언어적인 표현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더구나 다문화 가정의 아동들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학교와 일상생활에서 적응수준이 더 낮아질거라고 예측하고 있다(이영주, 2007). 그러나 최근 유아교육기관(보육시설 113곳, 유치원 103곳) 교사 216명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및 적응수준을 살펴본 결과(문무경·조혜주, 2008), 대부분의 교사들은 다문화가정 영유아와 일반가정 영유아간에 발달상의 별 차이를 못 느끼는 것(87.5%)으로 보고되었다.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수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체·언어·또래관계 영역에서는 일반 아동에 비해 ‘상’수준의 비율이 많은 반면에, 언어영역 중 말하기에 있어서의 ‘하’수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정 영유아의 지도 및 양육방식에 있어서도 다문화가정과 문화적 차이를 별로 느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교사의 비율이 81.5%

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 이들 가정의 영유아의 기관 적응수준이 낮은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교사들의 지각과 인식의 차원인지 혹은 실제의 반영인지,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아동의 학업과 적응수준이 뒤떨어지지 않다는 교사들의 인식이 일반화할 수 있는 이들 가정 아동의 구체적 발달지표인가 등에 대해서는 보다 객관화된 전국단위 자료를 통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3. 다문화가정의 부모-자녀 관계

지금까지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는 ‘가족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이들 가족의 응집력이 한국 문화에 적응을 하는데 어떠한 보호 또는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져 왔다(곽금주, 2008). 반면에 다문화가정의 본질적인 속성에 대한 이해로서 가장 직접적인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기술적인 보고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연구로서는 학령전기에 속한 다문화가정 아동들의 애착표상을 일반아동과 비교해 볼 때 유사한 수준이라고 보고한 박경자·김송이(2007) 연구가 있다. 또한 송미경 외(2008)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의 자녀양육경험 및 자녀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이주여성들은 가족들과 양육방식의 차이가 있을 때 가장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 여성과 자녀들의 상호작용 방식은 직접적 지도(예: 학습지도, 놀이등) 보다는 신체접촉을 통한 애정표현과 표정과 몸짓의 비언어적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경제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일반가정과 직접적인 비교 없이 기존의 연구에서 보고된 내국인 결과와 단순히 비교했다는 것과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와 자



녀들이 한국사회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문화적인 이질감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타당한 경험적인 실증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한 연구의 제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이러한 기존 연구의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라도, 강원도,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만 4-6세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 31쌍과 이들과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가정의 어머니와 만 4-6세 비교집단을 선정하여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문화 적응 양상을 포함한 어머니의 양육태도, 양육스트레스,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질적인 특성 및 다문화가정 아동의 인지, 언어, 사회·정서적 발달양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곽금주, 2008). 일부 자료 수집과 통계분석이 완료된 연구단계에서 보고된 결과를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은 일반 가정의 어머니들보다 더 우울하며, 비판적이고,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며, 양육태도에 있어서도 더 거부적인 경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가정 어머니-아동간의 상호작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일반 가정의 어머니보다 수동적이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으며, 과제에 대한 적절한 지도와 자극을 덜 제공하였으며, 아동의 자율성을 존중하기 보다는 강압적으로 자신의 기대를 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다문화 가정의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경제적 수준 영향이라기보다는 다문화가정의 특수성이 어머니-아동 상호작용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전은애·곽금주·출판 준비중; 곽금주, 2008 재인용). 지금까지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던 다문화가정의 어머니-자녀와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일반가정과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와 아동을 모두 포함한 연구의 범위, 내용 및 체계적인 설계면에서도 보완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일부 한국적 상황에 적합하지 못한 척도를 사용한 것과 어머니-아동관계와 아동의 학업성취 및 발달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들이 향후 다루어져야 할 중요한 연구쟁점으로 남아 있다.

### III 실제적, 정책적 이슈

다문화가정의 이주와 취업, 결혼 등은 그들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선택된 개별적 삶의 형태이지만, 유입자 사회인 우리나라의 변화 발전과도 밀접히 연관되어있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이해된다(김현미, 2007; 한건수, 2007). 따라서 그들을 사회적 소수이자 약자로 간주하여 지원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소극적 시각에서의 복지대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도 그들의 이주와 정착을 받아들이고 다문화사회로 변모해감으로써, 타문화와의 공존과 접점을 통해 새로운 삶의 양식과 자산을 확보하는 상호호혜적인 발전 과정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민자와 이주자들을 적극적 삶의 주체로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다양한 지원과 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습자이자 미래사회 인적자원의 양육자로서 이들의 잠재력과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적 접근과 관점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 앞서 살펴본 현황과 연구쟁점을 중심으로 고려해야 할 실제적 정책적 쟁점들을 간추려 보고자 한다.

#### 1. 실제적 쟁점

먼저 구체적인 지원사업 내용과 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실제적 쟁점들로는, 첫째, 가파르게 증가하는 국제결혼 가정의 이혼율과 국제결혼을 통해 재혼가정을 꾸리는 비율이 높음을 고려하여, 잠재되어있는 다문화가정의 가족 관계의 어려움과 역할 문제가 다문화가정의 가족체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즉 다문화가정의 가족안정성 강화를 위해 부부 및 부모자녀, 형제자매 관계, 가족간 의사소통과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와 그에 적합한 지원서비스가 요구된다 하겠다.

둘째, 미취학 영유아의 높은 비율과 초등학교 아동의 비율이 높음을 고려하여, 취학전 자녀를 위한 보육서비스의 저변 확대와, 학교생활을 하는 학령기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과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보육·교육 연계 지원 사업이 요구되며, 조기 실행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다문화가정 취업자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과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율을 줄일 수 있는 사회경제적 지원과 취업역량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다문화 가정의 빈곤이란 곧 다문화 '아동'의 빈곤화, 이주 '여성'의 빈곤화, 빈곤의 '대물림', 나아가 '가족의 해체'라는 또 다른 사회 문제로 누적되고 전이될 수 있으므로, 가족체계적 관점에서 빈곤에 대처하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프로그램의 구성이 요구된다. 높은 빈곤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기초생활수급율과 저조한 복지수혜율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지원에의 접근성과 정보제공기회를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겠다.

넷째, 이주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초기 문제 중 하나였던 인권과 성평등 관련 문제가 여전히 잔존하므로, 사회적 통합을 지향하는 다양한 다문화정책 수립과 함께 인권과 노동권 보장, 교육권, 가족내 성평등의 확립과 같은 근원적인 노력

은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구체화된 법적 제도적 정비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가정 및 취업 환경, 그리고 자녀의 학교생활 등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소통의 부재속에서 차별, 따돌림, 소외, 폭력과 착취, 범죄와 같은 사회적 위험들에 방치되지 않도록, 이웃과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에 주력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 그들의 문화적 이질감 해소와 적응을 돕기위한 본국인들간의 공동체 모임에 대해 지지하고 배려하는 지원사업이 요구된다.

## 2. 정책적 쟁점

위와 같은 실제적 쟁점들이 다문화가정의 지원사업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정책적 쟁점들로는 첫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의, 하위범주의 구성과 분류기준을 재정립하여 다문화가정 정책이 대상별로 차별화하여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배우자 1인이 한국 국적 소유자인 경우로 규정되어, 이주한 외국인 근로자 가정이나 새터민 가정 등 다양한 경계선상의 가정이 다문화가정의 법체계와 지원맥락에서 제외되어 있거나, 별도의 법체계에 속해있다. 공공자료 검색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를 위주로 다문화가정 실태파악과 현황보고가 많았던 반면,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 즉 이주노동자 가정에 관한 자료는 상대적으로 적거나 정확하게 분류, 반영되어있지 않았다. 또한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에 정착한 새터민이 공식적으로 15만명에 이르고, 전문직과 안정된 직업군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이민자도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정의 범주 안에 다양한

가족구성과 생활상이 반영되도록 해야겠다. 다문화가정을 분류하는 용어와 정의 및 기준이 혼용되어 모호한 부분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제결혼가정, 다문화 가정, 외국인 가정, 결혼이주자 및 노동이주자 가정, 난민 등의 용어들이 다문화 주제어 아래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었다<sup>2)</sup>. 또한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불법체류자와 정부지원체계에서 벗어나있는 빈곤층 다문화가정에 대한 자료 등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다양하고 정확한 가족생활상을 반영하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다문화가정의 범주와 정의에 대한 합의된 용어정립과 대상기준이 제시됨으로써 관련 법제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반도 보다 원활히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부처간의 개별화된 다문화정책수립이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통합될 필요성이다. 결혼이민자의 직업훈련은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의 보육과 상담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혹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일부 기능에서, 교육지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새터민가족 정착은 통일부 등 수직적으로 분산되어 있되 상호연계성이 부족하므로 행정주무부서간 업무상 통합과 연계가 요구된다. 프로그램과 해당사업의 운용이 일회성이거나 산발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상호유기성과 중장기적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화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통합정책의 개념화에 기반한 법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다문화정책이 지향하는 통합의 의미와 준거가 어떠한 것인지, 즉 우리나라 주류사회의 가치와 문화에의 이민자들의 동화를 강조하는 일방향의 것이 더 효

율적인지, 아니면 다문화가정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강조하는 문화간 공존의 패러다임인지, 현재 사회성숙도와 다문화가정의 요구를 고려한 단계적인 정책설정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가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관한 관점의 제고와 수립을 통해, 그들을 사회적 약자와 복지대상으로 접근하는 것 외에, 잠재적 미래 자산으로서 적극 양성하고 교육 투자하는 다양한 관점 수립과 그에 맞는 정책적 비계 설정 또한 요구된다.

### 3. 제언

이상의 실제적·정책적 쟁점들을 고려하여 최종 제언을 제시하자면, 첫째, 다문화가정 지원정책의 우리나라 저출산방지 및 인구정책과의 연계성에 대하여 고려할 것이 요구된다. 전체 아동인구비의 감소 추세가 다문화가정과 자녀의 증가 추세가 공존하므로, 현재의 다문화정책이 우리나라의 인구정책과 분리될 수 없다. 다문화가정의 출산과 자녀양육을 지원하기위해 적극적으로 실행될 예정인 산전산후지원사업과 양육지원 서비스 등이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저출산 방지 정책과는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정책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두 정책간의 연계를 위해서는 다문화가정(아동)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고유한 다문화정책의 기초와 가치체계가 우선적으로 구상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걸맞는 세부 정책과 법, 지원서비스로 구체화되도록 권고된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과 근로외국인의 유입은 아시아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같은 언어와 역사문화적 배경을 갖는 조선족의 비율이 크고,

2) 제시된 다문화 가정의 범주별 수치는 개별 조사별로 이루어져 동일 기준하에 제공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밝혀둔다.

북한이탈주민과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유입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선별과 통합의 이민정책의 실행이 외국의 기존 선례나 모형과는 상이할 것이다. 따라서 선진외국의 이민자정책과 서비스 실행을 참조하되, 우리 나라가 처한 역사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환경에 적합한 도착화된 다문화 정책의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자라나는 다문화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한 한국인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정책 관련 사업의 실효성과 현장성을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정을 위한 재정자원의 확보 및 지속적인 교육지원의 확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인식 개선 프로그램의 실행, 실현성 높은 서비스와 그 대상아동의 우선적 선정, 다문화 보육시설과 다양성에 기초한 다문화특화의 대안적 교육과정 설계, 교사대상의 다문화교육 강화 및 구체적인 교수방법 제시,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정책수립 과정과 서비스 실행단계에의 참여기회 확대, 그리고 지역간 편차를 줄이고 동시에 지역별 특성을 차별화시킬 수 있는 다문화 지역공동체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UN의 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현대적 의미의 보편적 복지실천으로, 영유아와 아동의 보호와 육성이라는 일차적 목적을 위해 국적과 법적체류자격을 불문하고 영유아와 아동에 대해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또한 그들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 가족이 함께 머무르고 생활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입장을 반영하는 다문화정책과 서비스를 견지해 나갈 것이 권고된다. 이를 위해, 다섯째, 정책 실행의 주체가 중앙정부 주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역자치단체, 비정부 민간사회단체와 종교단체, 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한 다문화정책 실행으로 발전해나갈 것이 권고된다.

## 참 고 문 헌

- 곽금주(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 다문화 가정에서의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 패턴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1-26.
- 교육과학기술부(2006/2008). 다문화가정 학생교육 지원 계획.
- 구효진·최진선(2007). 농어촌 다문화가정 유아의 인지적 특성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연구, 12(6), 43-67.
- 김갑성(2008).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18, 58-93.
- 김병순(2008). 다문화가정 자녀의 유치원 생활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18, 98-138.
- 김영옥·임진숙·정상녀(2008).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개인변인에 따른 양육태도 비교.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143-164.
- 김현미(2007). The State and migrant women : Diverging hopes in the making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contemporary families. *Korea Journal*, 47(4), 100-122.
- 김희태·권영덕(2007). 다문화가정 유아의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적응과 변화과정. 미래 유아교육학회, 14(4), 95-117.
- 류현주·김향희·김화수·신지철(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조음능력 및 음운변동 특성. 음성과학, 15(3), 133-144.
- 문무경·조혜주(2008). 다문화가정 육아지원 방안연구. 육아정책개발센터 연구보고. 서울 : 육아정책개발센터
- 박경자·김송이(2007).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 유아의 사회정서발달. 아동학회지, 28(5), 91-108.
- 박미경(2007). 교사를 통해본 다문화가정 유아의 특성 및 교사의 어려움 : 결혼이민자 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법무부(2009). 2009년도 출입국관리통계연보. 서울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정보분석팀.

- 보건복지가족부(2008).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강화대책. 서울 : 보건복지가족부.
- 보건복지부(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보건복지 지원정책방안 보고서. 서울 : (구)보건복지부.
- 설동훈 · 김윤태 · 김현미 · 윤홍식 · 이혜경 · 임경택 · 정기선 · 주영수 · 한건수(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서울 : (구)보건복지부.
- 설동훈 · 이혜경 · 조성남(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정책방안 연구. 한국사회학회 · 여성가족부.
- 송미경 · 지승희 · 조은경 · 임영선(2008). 다문화가정 외국인 모의 부모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97-517.
- 오성배(2006). 한국사회의 소수민족 코시안 아동의 사례를 통한 다문화 교육의 방향탐색. 교육사회학연구, 16(4), 137-157.
- 이영주(2007). 국제결혼한 여성의 자녀에 대한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12(2), 83-105.
- 정기선 외 6인(2007). 경기도 국제결혼 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 : 가족여성개발원.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실태조사. 교육부 정책연구과제 2006-이슈-3.
- 통계청(2008). 2008 한국통계연감-혼인. 서울 :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 통계청(2009). 2009 사회통계조사. 서울 : 통계청 사회통계국 사회복지통계과.
- 한건수(2007). Multicultural Korea : Celebration or challenge of multiethnic shift in contemporary Korea. *Korea Journal*, 47(4), 32-63.
- 행정안전자치부(2008). 국내거주 외국인 실태조사. 서울 : 행정안전자치부.
- 홍영숙(2007). 다문화가정이 봉착하는 자녀교육 문제와 시사점. 광주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2009년 8월 11일 투고, 2009년 10월 28일 수정  
2009년 11월 11일 채택